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분석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99.1.6~1.23일까지 벤처기업 2,042개를 대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업종, 유형, 규모, 대표자의 출신성분 등 벤처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벤처기업의 유형·업종·지역·업력별 특성

- 유형별로 보면 특허기술개발기업이 786개(38%)로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투자기업은 584개(28%),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 494개(24%), 신기술개발기업은 178개(9%)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분야는 636개(31%), 기계·금속분야는 600개(29%), 전기·전자분야는 310개(15%), 섬유·화학분야는 247개(12%), 의료·정밀분야는 139개(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이 1,366개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부산·울산(159개)지역이며, 제주지역은 3개로 벤처기업의 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는 1년이하 기업은 122개(6%), 1~2년 기업은 239개(11.7%), 3~5년 기업은 609개(29.8%), 6년이상 기업은 1,072개(52.5%)임.
- 자본금 규모별 특성을 보면 10억원 미만의 기업은 전체의 77%, 10~50억원의 기업은 15.5%, 50억원 이상의 기업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자본금은 12억원임.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

- 벤처기업 경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42.6%, 30대 21%, 50대 27.5%, 60대 이상 7.7%, 20대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고서의 중소기업체체의 평균연령 48.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5세정도 젊은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경영자의 출신배경은 중소기업 48.3%, 대기업은 32%, 연구원 9.4%, 대학교수 2.2%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벤처기업인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스핀오프하여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증가율 3배, 매출영업이익 4배, 연구개발투자비율이 33배이며, 대기업에 비해 매출증가율이 2배, 매출영업 이익률이 2배, 연구개발투자비율이 20배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업체당 평균 4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가져왔다. 96년, 97년도의 벤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55명, 59명으로 7.3% 증가하였으며, 일반 중소기업은 21명, 20.5명으로 2.4% 감소하였다.

벤처기업의 지원 및 정보제공

- 확인 받은 벤처기업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면제 등 세정지원과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기술혁신개발 자금 등 정부정책자금 선정시 사점부여, 방송광고시 광고료 할인,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지원혜택이 있다.
- 그동안 확인된 벤처기업을 DB화하여 개별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을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벤처넷의 구축을 통하여 더욱 자세한 벤처기업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